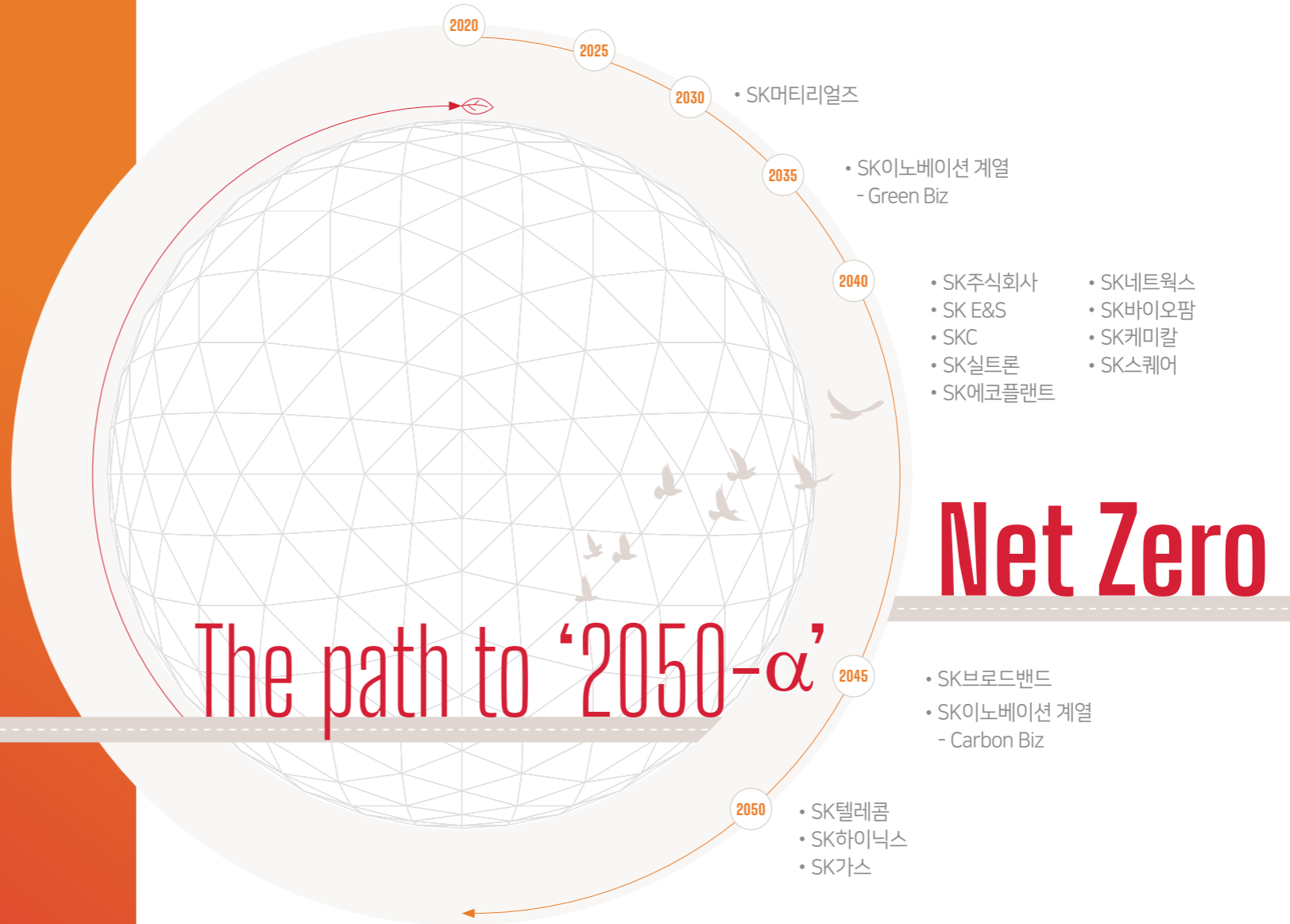


## ESG STORY 1 – ENVIRONMENTAL

탄소중립을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회로 삼아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다.

이제는 우리가 지구와 직접 대화할 때입니다.  
SK는 하나뿐인 지구를 위해, 우리의 미래를 위해,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는 글로벌 움직임에 함께 합니다.  
나아가 친환경 비즈니스 전환과 탄소중립을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삼아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선도하겠습니다.



# Net Zero

# ‘2050-α’ NET ZERO

2021년 여름, 세계 곳곳에서 기상이변으로 인한 화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4,200km<sup>2</sup> 면적을 태운 사상 최악의 산불이 발생했고, 남유럽 지역에서도 거대한 산불이 2주 가까이 타오르면서 주민 수백, 수천 명의 피난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20년 간 서울 면적의 1.25배에 달하는 아이슬란드 빙하가 녹아 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이슬란드 국토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빙하가 2200년 정도가 되면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현실이 된 기후위기. 지구 온도를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탄소중립(Net-zero)’에 도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 국가들이 탄소중립이라는 글로벌 목표를 향해 힘을 모으고 있지만, 그 누구도 아직 가보지 못한 길로 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용기가 필요한 시기, SK가 도전합니다. 2021년 6월, SK 14개 멤버사는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습니다. 나아가 우리의 다짐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중간 목표와 이행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글로벌 탄소중립 목표 시점인 2050년보다 이른 시점에 온실가스 순 배출량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야심찬 ‘2050-α’ 목표를 세웠으며, 각 사별로 업종별 글로벌 기후 리더십을 발휘하는 수준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약속한 바가 성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입증하겠습니다.

## PROGRESS TOWARD ZERO BY 2050, OR EARL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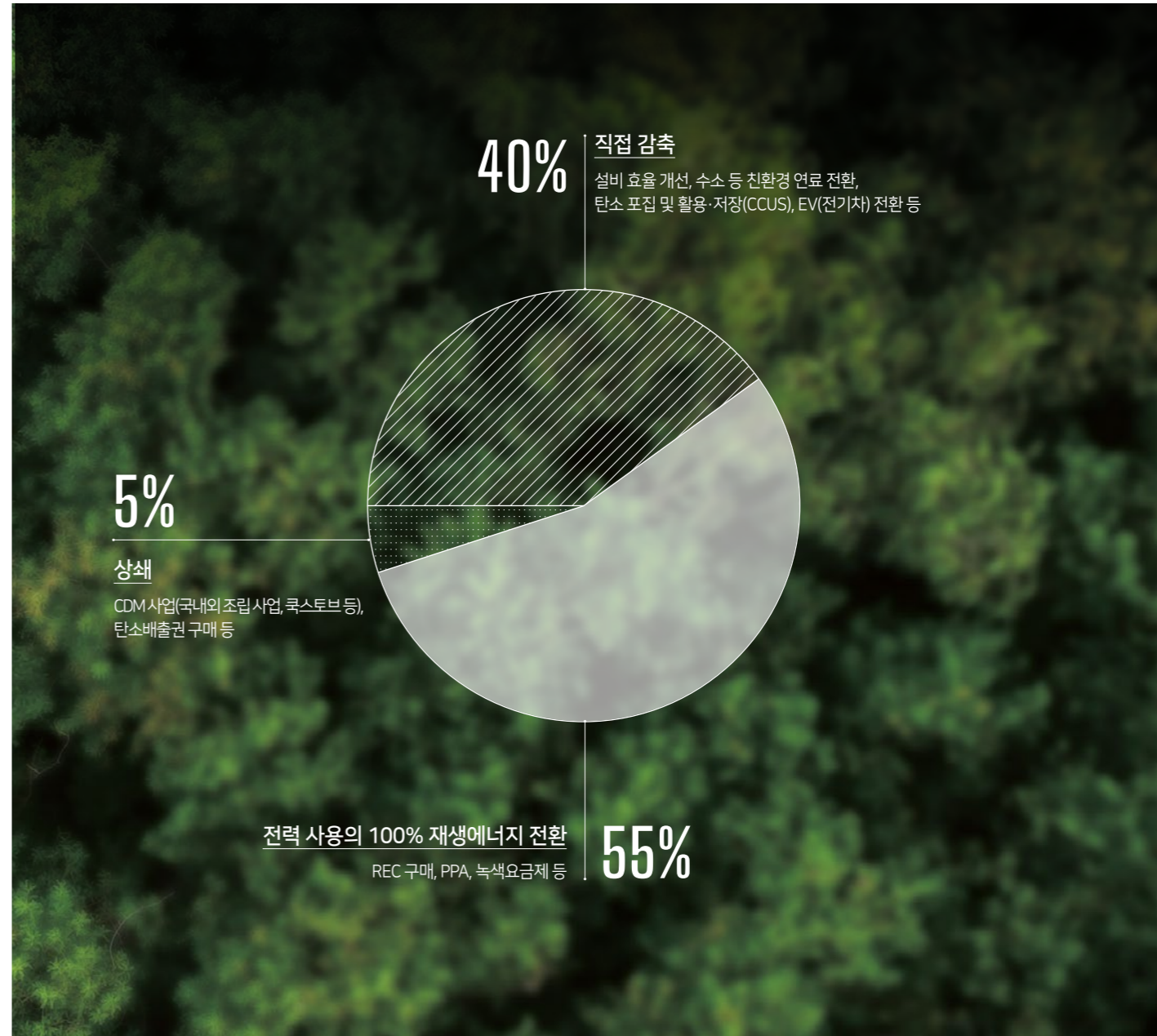


탄소중립이란 인간 활동으로 인해 발생된 온실가스의 배출량과 흡수량을 같도록 하여 순배출량이 'Zero'가 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SK 탄소중립의 범위는 제품 생산과정(Scope 1)과 공정 가동에 필요한 전기 등을 만드는 과정(Scope 2)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넘어, 제품 운송과 사용, 그리고 폐기를 아우르는 밸류체인 전반(Scope 3)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포함합니다.

탄소중립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배출량을 최대한 줄여야 할 뿐만 아니라, 남은 온실가스는 산림 등을 통해 흡수하거나 CCUS 기술<sup>1)</sup> 등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기업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는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으로, SK는 2020년 국내 최초로 RE100<sup>2)</sup>에 가입하며 저탄소·탈탄소 비즈니스로의 전환을 누구보다 빠르게 추진해 왔습니다. RE100은 2050년까지 사용 전력량의 100%를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조달하고자 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자발적 이니셔티브로, SK주식회사를 비롯하여 SK텔레콤, SK하이닉스, SKC, SK실트론, SK아이이테크놀로지 등 6개 SK 멤버사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SK는 '2050-d' Net Zero 달성 과정에서 2030년 글로벌 탄소배출량 2억 톤 감축에 기여하겠다는 담대한 목표를 밝혔습니다. 2억 톤은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 210억 톤<sup>3)</sup>의 1%에 해당하는 수치로 이를 이루기 위해 SK는 재생에너지 전환 노력에 더해, 기존 사업의 직접 감축과 신규 사업의 순 배출량 제로를 추진합니다. 광범위하고 전례 없는 속도로 진행되는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행동입니다.

SK가 지금까지 배출한 탄소를 빠른 시일 내에 모두 제거할 수 있도록, SK는 사회적 가치를 기반으로 둔 비즈니스 변화를 추진하며 목표한 바를 단호하게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sup>1)</sup>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활용(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하는 기술  
<sup>2)</sup>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 글로벌 비영리단체인 The Climate Group과 글로벌 환경경영 인증기관인 CDP(Carbon Disclosure Project)가 2014년 발족한 글로벌 이니셔티브  
<sup>3)</sup> 출처: International Energy Agency 2021 Report